

경기도 지역 청소년의 소비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용돈사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Adolescents' Consumption in Kyonggi
Province: Focused on Pocket Money Spending

김 인 숙 · 백 선 희 · 이 연 자
서원대학교 가정교육과

Kim, In Sook · Baek, Seon Hee · Lee, Youn J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eowon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n consumption of adolescents, focused on their pocket money. Three-hundred students attend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in Kyonggi Province were selected, and surveyed using questionnaires. Out of them, 272 students were used in statistical analysis, with frequency, percentage and Chi-test in SPSS/PC+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most adolescents got pocket money irregularly from their mothers and average amount per month was more than 10 thousands and less than 50 thousands won. And they weren't satisfied with that amount, especially girl students.

Second, most adolescents got extra money when it is a gala day or their records were improved. And most of them did nothing on consideration for their pocket money.

Third, most adolescents spent pocket money for hobby or leisure and for snacks.

Fourth, most adolescents had never guided how to spend money and had never evaluated their money spending.

Fifth, most adolescents tried to spend money thoughtfully and evaluated their friends spent money on impulse.

Sixth, most adolescents wanted to buy clothings and friends influenced their spending habit.

I. 서론

청소년기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으로 발달되어 가는 발달 과정상의 한 과도기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내적세계 즉, 성격이나 정신세계와 그것이 외현되어 가는 생활 장면에서의 행동 징후는 혼란과 불안정이 혼재되어 미숙

한 상태이다. 그러는 한편,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주위 환경 등의 영향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므로, 소비에 있어서도 주변 어른들의 무절제한 행동을 본받기 쉽다. 실제로 저축추진 중앙위원회의 199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49%가 '부모나 주위의 어른이 구입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이런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은 맹목적인 소비행태를 반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성인들의 사치풍조, 과소비 성향과 지나친 물질 위주의 사고 방식의 영향까지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때의 경험에 따라 그 후의 인간형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청소년기는 소비와 관련한 경험 역시 이후 성인으로까지 지속되게 되므로 이 시기에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건전소비를 하려는 자세를 숭수범해서 보여 주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며, 아울러 순화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약한 구매력 때문에 청소년들의 소비생활에 관한 주위의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은 실정이며, 더욱이 부모의 허술한 용돈관리나 집안 어른들의 후한 용돈이 자녀들로 하여금 잘못된 소비의식을 갖게 하기 쉽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비생활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은 그 결과를 학교 소비자 교육에 포함시켜 청소년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소비의식을 갖도록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책임있는 소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소비사회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행동 및 일반적인 소비생활에 관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기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전관리, 특히 자신의 용돈에 대한 관리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그들의 일반적인 소비의식과 구매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연구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교육의 내용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용돈

청소년들은 어린이처럼 성인에게 의지하기에는 너무 성장하였고, 그렇다고 성인처럼 사회적으로 독립된 사회인이 되기에는 아직 미성년자이다(이태호, 1992). 시기로는 청년전기(13 - 16세)와 청년후기(17 - 21, 2세)로 분류하는데(유영주, 1982), 보통 중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 시기까지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일반적인 생활패턴과 소비의 모습은 중·고등학생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 이들을 같은 대상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중·고등학생의 소비의식 및 행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물건을 스스럼없이 사고 외제품을 무분별하게 선호하는 등 과시 및 모방소비 풍조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 분실물을 찾으려 하지 않고 새 것만을 사려하는 등 물자절약 정신이 부족하다는 점,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천의지가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과도한 용돈을 무계획적으로 쓰며,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 등으로 정리되고 있다(국민 경제교육 연구소, 1996).

이 중 용돈관련 부분은 청소년의 직접적인 소비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장치 사회적 참여에 필요한 태도와 가치를 개발해 나가는 정신적·신체적 성장 과정에서 용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체로 부모, 친척, 기타 가족들에게 받는 것과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쓰는 소득 중 '자신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용돈(백선옥, 1990)이라고 한다.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용돈으로 소비 생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사회경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태도를 배울 수 있고, 더불어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백선옥, 1990). 이러한 용돈에는 학교 납부금, 학교 저축, 교과서 대금, 참고서 대금과 같이 학교 생활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출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다. 그리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용돈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개념정의하도록 하고자 한다.

용돈 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대한 어머니회에서 초등 5년~고교 3년생 4,013명을 대상으로 한 용돈실태 조사(1997)에서, 월평균 용돈은 중학생 40,142원, 고등학생은 58,898원으로 저축추진 중앙위원회의 조사(1988)보다 각각 18,785원과 29,365원이 증가된 액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엄마 소비행태가 무분별할수록 자녀들 씀씀이가 해픈 경향이고, 한달용돈 적정액수를 중학생은 36,000원을, 고등학생은 62,000원을 권장하는 것(조선일보, 1997. 6. 18)으로 결론짓고 있었다. 또한 1998년 들어 우리나라가 맞이한 IMF 체제이후 청소년들의 달라진 모습으로 '용돈을 줄였다'는 경우가 27.2%로 나타나(조선일보, 1998. 5. 20) 사회문제에 따라 청소년들의 소비행동에는 변화가 있게 됨을 보여 주었다.

2. 용돈 관리 행동

청소년들은 소비 생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동료 집단이나 타집단의 영향을 받기 쉽다. 그리하여 용돈관리 행동에서도 충동적인 경우가 많으며 어른들의 파시적인 소비 성향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이명옥, 1990). 여기서 용돈관리 행동은 용돈을 관리하는 일련의 행동(한은하, 1991)이면서 자기 스스로 금전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태도 등을 말하는데, 그 행동의 동기는 근본적으로 충족시키고 싶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 기인하게 된다. 따라서 욕구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용돈관리의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즉 인간의 욕망에 비례하여 용돈의 한계가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다(박무익, 1983).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완전한 상황에서 자유로이 소비할 수 있는 금전이 주어져도 금전관리 경험이 부족하기(이명옥, 1990) 때문에 주어진 용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일(한은하, 1991)이 된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주어지는 용돈은 가정의 경제 수준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부모의 소비 행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백선옥, 1990). 따라서 부모의 올바른 금전관리

태도는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이인희, 1992) 자녀의 바람직한 금전관리 행동 형성에도움을 줄 수 있고, 선천적인 자질이라기 보다는 학습 경험에 의해서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저축추진 중앙위원회의 조사(1992)에서는 대상 학생의 38%가 '용돈을 지출하기 전에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고 하였으며, 용돈기 입장을 활용하는 학생은 겨우 9% 정도에 불과하고,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거의 살 수 있으며, 설날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에는 부모나 집안 어른들로부터 과다한 용돈을 받으므로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용돈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용돈지출 후에도 과반수의 학생들이 부모와 평가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민경제 교육연구소, 1996).

그리고 저축추진 대구시 위원회의 조사(1997)에 의하면 대상이 되는 초중고-대학생의 86.6%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돈만으로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이 42.6%로, 상당한 비율의 학생들이 물질만능주의 및 황금만능주의에 몰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매일경제신문, 1997. 6. 11)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상급생 때부터는 계획적인 용돈관리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서는 소비범위를 좁게 해서 지급하다가 차츰 그 범위를 넓혀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성되는 건전한 물질관과 이로 인한 절제있는 소비생활은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게 되는데, 반면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자라난 경우에는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쉽게 좌절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제있고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통해서 자칫 황금만능주의로 명뿔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뚜렷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89).

3. 용돈 지출 행동과 구매 행동

오늘날 소득 수준의 향상과 가정내의 지위

항상 등으로 청소년들이 자유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구매 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이태호, 1992). 따라서 청소년의 용돈지출 행동은 자기 스스로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하여 금전을 주고 사는 사회경제 활동의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구매 의사 결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소년들은 대체로 유행에 민감하며 즉흥적이고 물질 주의적이며, 편의 주의적이고, 제품 구매시에도 충동적인 구매 경향을 보이고 있어(강이주, 1988)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축추진 대구시 위원회의 조사(1997)에서도 상품 구입시 44.1%의 학생이 '대충 물건을 선택한다'고 하였고, '반드시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도 거의 50%로 나타나 학생들의 충동구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매일경제신문, 1997. 6. 11).

그리고 대한 어머니회의 조사 결과(1997)에 의하면 조사대상 학생들의 용돈 사용처는 '의류구입비'가 전체 용돈의 15.3%로 가장 많았고, 간식비 15%, 교재비 14.2%로 나타나 저축추진 중앙위원회의 조사(1988)에서 나타난 중학생의 경우 교재비 32.4%, 교통비 30.9%, 간식비 29.6%와 고등학생의 경우 교통비 42.3%, 교재비 22.3%, 간식비 20.4%와는 양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었다(조선일보, 1997. 6. 18).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바람직한 지출 행동을 위해서는 올바른 소비자 교육과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태호, 1992)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행동을 중심으로 소비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산본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으로 하여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27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의정부시의 3개 중학교(경민 중학교, 의정부 중학교, 경민 여자중학교)를, 산본시의 1개 고등학교(산본고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남학생 139명분, 여학생 133명분이 된다. 조사기간은 1997년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계
중학교	64	59	123(45.2)
고등학교	75	74	149(54.8)
계	139(51.1)	133(48.9)	272(100.0)

2.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각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각 문항별로 남녀 학생간 차이를 알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남녀 학생간 차이를 보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여학생은 장차 한 가정의 주부로서 소비생활을 책임지는 '가정소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게 되는 반면, 남학생은 개인적인 관심사 위주의 지출을 하게 된다고 보여지므로 남녀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함이다.

IV. 결과 및 해석

청소년의 용돈관리 및 소비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금전관리, 특히 용돈관리 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용돈 조달에 관한 내용, 용돈사용에 관한 내용과 용돈사용에 대한 지도·평가여부를,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의식 및 구매행동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용돈 조달에 관한 내용

청소년들은 용돈을 어디서 조달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받는 경우보다는 '어머니'로부터 조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표 2), 이는 청소년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접촉하는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녀 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청소년들의 용돈주기는 '불규칙적'인 경우가 '규칙적'이라는 응답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와 같은 결과는 남녀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2> 용돈의 출처 단위 : 명(%)

구 분	아 버 지	어 머 니	기 타	계
남 학생	35(27.3)	84(65.6)	9(7.0)	128(100.0)
여 학생	26(23.6)	77(70.0)	7(6.4)	110(100.0)
계	61(25.6)	161(67.6)	16(6.7)	238(100.0)

$$\chi^2 = 0.524^{ns} \quad df=2 \quad p<0.10$$

<표 3> 용돈의 주기 단위 : 명(%)

구 분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계
남학생	65 (47.8)	71 (50.7)	136(100.0)
여학생	54 (41.2)	77 (58.8)	131(100.0)
계	123 (45.4)	148 (54.6)	267(100.0)

$$\chi^2 = 0.167^{ns} \quad df=1 \quad p<0.10$$

<표 4> 용돈의 액수

단위 : 명(%)

구 분	1만-3만원미만	3만-5만원미만	5만-7만원미만	7만원이상	대중없음	계
남 학생	48(34.8)	43(31.2)	18 (13.0)	4(2.9)	25(18.1)	138(100.0)
여 학생	57(43.5)	40(30.5)	8 (6.1)	7(5.3)	19(14.5)	131(100.0)
계	105(39.0)	83(30.8)	26 (9.7)	11(4.1)	44(16.4)	269(100.0)

$$\chi^2 = 6.184^{ns} \quad df=4 \quad p<0.10$$

<표 5> 용돈액수 결정방법

단위 : 명(%)

구 분	부모님 단독	부모님과상의	자기자신	대중없음	계
남 학생	53(39.3)	43(31.9)	11(8.1)	28(20.7)	135(100.0)
여 학생	34(27.0)	46(36.5)	8(6.3)	38(30.2)	126(100.0)
계	87(33.3)	89(34.1)	19(7.3)	66(25.3)	261(100.0)

$$\chi^2 = 6.072^{ns} \quad df=3 \quad p<0.10$$

청소년들이 한달에 받는 용돈액수는 '1만원-3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만-5만원 미만'이 30.8%로 나타나 중고등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용돈은 그렇게 지나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표 4). 이 결과는 남녀 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에는 용돈액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부모님과 상의하여 결정한다'가 34.1%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 단독으로 결정한다'가 33.3%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나(표 5), 청소년의 용돈액수에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남녀 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결정된 용돈액에 대해 '부족한 편'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이 39.9%로 '충분한 편'으로 인식하는 32.9%에 비해 많았는데(표 6), 이런 경향은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녀 학생간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인정되고 있었다.

또한 55.7%의 청소년들은 '명절 때'에, 그리고는 '성적이 올랐을 때', '착한 일을 했을 때'의 순으로 추가용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정에서 드러나는 생활의 한 단면을 알 수 있었다(표 7). 이 결과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응답학생의 절반이 넘는 57.9%가 용돈을 받는 대가로 '아무일도 안한다'고 하여 가벼운 집안일을 돕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는 경우보다 많았다(표 8). 이 결과는 1% 유의수준에서 남녀 학생간의 차이가 인정되었는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은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훨씬 많았다. 집안일을 돕는 학생 중 여학생은 설거지나 부엌일을, 남학생은 심부름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에 대한 인식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성별 차이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부과되는 행위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용돈사용에 관한 내용

청소년들은 그들이 받게 된 용돈을 '취미오락비'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다음이 '간식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이런 경향은 남녀 학생간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취미오락비'에의 지출이 단연 많은 반면, 여학생은 '취미오락비'와 '간식비'가 거의 비슷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학용품비'에의 지출이 낮은 점은 청소년들이 정하는 용돈의 개념에 문구류에 대한 지출은

<표 6> 용돈의 적정도 인지

단위 : 명(%)

구 분	매우 충분	비교적 충분	보 통	약간 부족	매우 부족	계
남 학생	19 (14.0)	37 (27.2)	29(21.3)	33 (24.3)	18 (13.2)	136(100.0)
여 학생	5 (3.8)	27 (20.5)	44(33.3)	38 (28.8)	18 (13.6)	132(100.0)
계	24 (9.0)	64 (23.9)	73(27.2)	71 (26.5)	36 (13.4)	268(100.0)

$$\chi^2 = 13.107^{**} \quad df=4 \quad p<0.05$$

<표 7> 추가용돈을 받는 경우

단위 : 명(%)

구 분	생일날	착한일 했을때	명절 때	성적이 올랐을때	기 타	계
남 학생	15 (11.7)	9 (7.0)	69 (53.9)	29 (22.7)	6 (4.7)	128(100.0)
여 학생	9 (7.8)	18 (15.5)	67 (57.8)	15 (12.9)	7 (6.0)	116(100.0)
계	24 (9.8)	27 (11.1)	136 (55.7)	44 (18.1)	13 (5.3)	244(100.0)

$$\chi^2 = 8.491^{ns} \quad df=4 \quad p<0.10$$

<표 8> 용돈의 대가로 하는 일

단위 : 명(%)

구 분	청소·빨래	설거지·부엌일	심부름	아무일도안함	계
남 학생	10 (8.0)	4 (3.2)	36 (28.8)	75 (60.0)	125(100.0)
여 학생	12 (10.3)	22 (18.8)	18 (15.4)	65 (55.6)	117(100.0)
계	22 (9.1)	26 (10.7)	54 (22.3)	140 (57.9)	242(100.0)

$$\chi^2 = 22.827^{***} \quad df=3 \quad p<0.01$$

<표 9> 용돈 사용처

단위 : 명(%)

구 분	학용품비	교통비	간식비	취미오락비	기 타	계
남 학생	19 (15.3)	3 (2.4)	21 (16.9)	72 (58.1)	9 (7.3)	124(100.0)
여 학생	14 (14.3)	6 (6.1)	33 (33.7)	39 (39.8)	6 (6.1)	98(100.0)
계	33 (14.9)	9 (4.0)	54 (24.3)	111 (50.0)	15 (6.8)	222(100.0)

$$\chi^2 = 11.954^{**} \quad df=4 \quad p<0.05$$

제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¹⁾

이들 청소년들은 용돈을 사용하다가 부족하게 되는 이유로 자신의 '무계획적인 행동' 때문이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육구의 무절제'가 31.8%로 나타나 대체로 자신들의 탓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0). 이런 결과는 남녀 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용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취하는 행동으로는 '다음 용돈을 가불한다'가 가장 많았고, '거짓말을 한다' '남에게 빌린다'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취하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1). 이 결과는 5% 유의수준에서 남녀 학생간에 차이가 인정되었는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용돈을 가불'하거나 '남에게 빌리는' 등 비교적 정직한 행동을 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거짓말을 한다'가 가장 많아 다소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번에는 혹시 용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사고 싶었던 것을 산다'가 3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12), 이 결과는 남녀 학생간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사고 싶은 것을 사거나 저축을 한다'는 응답이 남학생의 경우에서 많았고, 여학생은 '친구들과 논다'는 응답이 남학

<표 10> 용돈이 부족하게 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무계획적행동	절대액수부족	육구의 무절제	습관성	기 타	계
남 학생	46 (38.0)	14 (11.6)	36 (29.8)	10 (8.3)	15 (12.4)	121(100.0)
여 학생	53 (42.7)	12 (9.7)	42 (33.9)	8 (6.5)	9 (7.3)	124(100.0)
계	99 (40.4)	26 (10.6)	78 (31.8)	18 (7.4)	24 (9.8)	245(100.0)

$\chi^2 = 2.796^{ns}$ df=4 p<0.10

<표 11> 용돈이 부족할 때의 행동

단위 : 명(%)

구 분	아르바이트로 보충	다음용돈을 가불	거짓말을 한다	남에게 빌린다	기 타	계
남 학생	10 (7.5)	27 (20.2)	13 (9.7)	14 (10.4)	70 (52.2)	134(100.0)
여 학생	4 (3.1)	23 (17.7)	28 (21.5)	7 (5.4)	68 (52.3)	130(100.0)
계	14 (5.3)	50 (18.9)	41 (15.5)	21 (8.0)	138(52.3)	264(100.0)

$\chi^2 = 10.683^{**}$ df=4 p<0.05

<표 12> 용돈이 남을 때의 행동

단위 : 명(%)

구 분	저 축	사고 싶었던 것을 산다	친구들과 논다	아무렇게나 쓴다	기 타	계
남 학생	39 (28.9)	51 (37.8)	13 (9.6)	18 (13.3)	14 (10.4)	135(100.0)
여 학생	26 (20.3)	40 (31.3)	25 (19.5)	14 (10.9)	23 (18.0)	128(100.0)
계	65 (24.7)	91 (34.6)	38 (14.4)	32 (12.2)	37 (14.1)	263(100.0)

$\chi^2 = 10.229^{**}$ df=4 p<0.05

1) 본 연구에서는 용돈의 개념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관계로 응답학생 개개인이 생각하는 용돈의 범위는 다양할 수 있다. 대한 어머니회의 조사(1997)에서 '의류 구입비'에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 할 때 본 연구의 대상학생들은 대체로 '의류구입비'를 용돈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행동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용돈사용에 대한 지도·평가 여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은 그동안 용돈사용에 관한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거의 2/3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표 13), 청소년들의 용돈을 비롯한 금전사용에 관한 지도가 필

<표 13> 용돈사용에 관한 지도를 받았는지 여부
단위 : 명(%)

구 분	있 다	없 다	계
남 학생	61 (44.9)	75 (55.1)	136 (100.0)
여 학생	46 (34.8)	86 (65.2)	132 (100.0)
계	107 (39.9)	161 (60.1)	268 (100.0)

$\chi^2 = 2.795^*$ df=1 p<0.10

<표 14> 용돈 사용 지도를 받은 곳
단위 : 명(%)

구 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기 타	계
남 학생	8 (13.6)	49 (83.1)	2(3.4)	59(100.0)
여 학생	7 (15.6)	30 (66.7)	8(17.8)	45(100.0)
계	15 (14.4)	79 (76.0)	10(9.6)	104(100.0)

$\chi^2 = 6.469^{**}$ df=2 p<0.05

< 표 15 > 용돈사용 후 평가 방법
단위 : 명 (%)

구 분	부모님께 늘 보고	물어보실 때만 알림	용돈기입장에 기록	평가안함	기 타	계
남 학생	7 (5.1)	48 (35.0)	7 (5.1)	73 (53.3)	2 (1.5)	137(100.0)
여 학생	5 (3.8)	40 (30.8)	11 (8.5)	72 (55.4)	2 (1.5)	130(100.0)
계	12 (4.5)	88 (33.0)	18 (6.7)	145 (54.3)	4 (1.5)	267(100.0)

$\chi^2 = 1.774^{ns}$ df=4 p<0.10

< 표 16 > 자신의 지출행동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 분	가급적 분별있게 사용하려 함	남을생각할 필요 없다	남과는 아무 상관 없다	기 타	계
남 학생	70 (51.9)	10 (7.4)	47 (34.8)	8 (5.9)	135(100.0)
여 학생	57 (44.2)	13 (10.1)	44 (34.1)	15 (11.6)	129(100.0)
계	127 (48.1)	23 (8.7)	91 (34.5)	23 (8.7)	264(100.0)

$\chi^2 = 3.817^{ns}$ df=3 p<0.10

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 결과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인정되어 남학생보다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용돈사용에 관한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경우 '가정에서'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학교교육의 소홀함을 보여 주었는데(표 14), 여기서도 5% 유의수준에서 남녀 학생간에 차이가 인정되고 있어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에 비해 '가정에서' 지도를 받은 적이 더 많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정도 학교도 아닌 경우가 많아 금전관리에 관한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용돈을 사용한 후에 '평가 안한다'는 응답이 5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님이 물어보실 때만 알려드린다'가 33.0%로 나타나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15). 여기서 앞 표의 결과와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은 용돈관리 및 금전관리에 대해 거의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일반적인 소비의식 및 구매행동에 관한 내용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출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 보았는데, '가급적 분별있게 사용하려 한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

은 반면, 다음으로 '남과는 아무 상관없다'거나 '남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3.2%나 되어 소비에 대한 올바른 사고정립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표 16). 이런 결과는 남녀 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의 용돈사용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았는데, '충동적'이라는 의견이 59.8%인 반면, '계획적'이라는 의견은 17.9%에 불과하였고, '관심없다'는 응답도 2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이런 응답결과는 남녀 학생간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들의 경우에 다른 친구들을 '충동적'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이 66.7%로 남학생의 5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학생에게서 '관심없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난 점에서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은 주위 사람을 의식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다소 무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출 중에서 어떤 경우에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효도용'이나 '자기만족'을 위해 지출했을 때가 각각 30.4%와 30.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이 '저축했을 때'라고 응답하였다(표 18). 이 결과는 남녀 학생간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은 '효도용'과 '저축했을 때'에 만족을 느끼는 반면, 여학생들은 '자기만족'을 위해 지출했을 때 만족한다고 하여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계획에 없는 지출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친구들과 어울릴 때'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신을 위해 지출할 때'로 나타났다(표 19). 이 결과는 남녀학생간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인정되고 있는데, 남학생들은 '자신을 위해 지출할 때'가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에 계획에 없는 지출을 한다는 응답이 여학생에

<표 17> 다른 친구들의 용돈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계 획 적	충동적인편	아주충동적	관심없음	계
남 학생	27 (19.6)	52 (37.7)	22 (15.9)	37 (26.8)	138(100.0)
여 학생	21 (16.0)	73 (55.7)	14 (10.7)	23 (17.6)	131(100.0)
계	48 (17.9)	125 (46.4)	36 (13.4)	60 (22.3)	269(100.0)

$$\chi^2 = 9.929^{**} \quad df=3 \quad p<0.05$$

<표 18> 자신의 지출에 만족하는 경우

단위 : 명(%)

구 분	효도용	자기만족	저축했을때	선물이나도움 을주었을때	기 타	계
남 학생	50 (37.3)	27 (20.1)	39 (29.1)	15 (11.2)	3 (2.2)	134(100.0)
여 학생	28 (22.2)	52 (41.3)	34 (27.0)	9 (7.1)	3 (2.4)	126(100.0)
계	78 (30.0)	79 (30.4)	73 (28.1)	24 (9.2)	6 (2.3)	260(100.0)

$$\chi^2 = 15.728^{***} \quad df=4 \quad p<0.01$$

<표 19> 계획에 없는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

단위 : 명(%)

구 분	친구들과 어울릴때	나를 위해 쓸 때	용돈이 남았을때	스트레스가 쌓였을때	기 타	계
남 학생	74 (53.6)	32 (23.2)	14 (10.1)	12 (8.7)	6 (4.3)	138(100.0)
여 학생	75 (58.1)	23 (17.8)	9 (7.0)	17 (13.2)	5 (3.9)	129(100.0)
계	149 (55.8)	55 (20.6)	23 (8.6)	29 (10.9)	11 (4.1)	267(100.0)

$$\chi^2 = 25.772^{**} \quad df=4 \quad p<0.05$$

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대체로 필요한 물건은 '시내 중심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단골상점'과 '학교 근처상가'라고 응답하였다(표 20). 이 결과는 남녀 학생간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인정되었는데, 여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시내 중심가'에서 구입한다고 한 반면 남학생은 '단골상점'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 남녀 학생간에 구매유형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제일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녀학생 모두가 '의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는 '기타'를 제외하고 '테이프나 CD'에 12%에 해당하는 학생이 응답하였다(표 21). 이 결과는 남녀학생 간에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학생들은 '의류'를, 그리고 남학생들은 사고 싶은 품목이 여학생에 비해 보다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참고로 전국 여학생(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44명을 대상으로 갖고 싶어하는 물건에 대한 조사결과(조선일보, 1997. 7. 22)를 보면, 여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물건에 대해서 전체 대상자 중 25.1%가 '의류'를 선호하고 있는 점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영향을 받는 요인에 대해 알아본 결과, '친구'라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기 자신' 29%, '대중매체' 22.8%의 순으로 나타나서 쉽게 접근가능한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상당히 크게 나타난 점이 다소 의외라고 생각된다(표 22).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남녀 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표 20> 물건 구입 장소

단위 : 명(%)

구 분	백화점	학교근처상가	시내중심가	단골상점	기 타	계
남 학생	4 (3.1)	14 (10.9)	63 (48.8)	36 (27.9)	12 (9.3)	129(100.0)
여 학생	3 (2.5)	9 (7.5)	86 (71.7)	17 (14.2)	5 (4.1)	120(100.0)
계	7 (2.8)	23 (9.3)	149 (59.8)	53 (21.3)	17 (6.8)	249(100.0)

$\chi^2 = 14.167^{**}$ df=4 p<0.05

<표 21> 제일 사고 싶은 물건

단위 : 명(%)

구 분	의 류	책	장신구	Tape · CD	기 타	계
남 학생	76 (58.9)	10 (7.7)	2 (1.6)	15 (11.6)	26 (20.2)	129(100.0)
여 학생	82 (68.3)	7 (5.8)	5 (4.2)	15 (12.5)	11 (9.2)	120(100.0)
계	158 (63.5)	17 (6.8)	7 (2.8)	30 (12.0)	37 (14.9)	249(100.0)

$\chi^2 = 7.809^*$ df=4 p<0.10

<표 22> 물건 구입시 영향을 받는 요인

단위 : 명(%)

구 분	대중매체	친 구	부모님	자기자신	판매원	계
남 학생	36 (26.5)	61 (44.9)	3 (2.2)	34 (25.0)	2 (1.5)	136(100.0)
여 학생	22 (18.5)	51 (42.9)	5 (4.2)	40 (33.6)	1 (0.8)	119(100.0)
계	58 (22.8)	112 (43.9)	8 (3.1)	74 (29.0)	3 (1.2)	255(100.0)

$\chi^2 = 4.479^{ns}$ df=4 p<0.10

부모님이 청소년의 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매우 관심 많다'와 '조금 관심 있다'를 합한 '관심 있음'을 보면 86.9%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관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이 결과는 남녀 학생간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인정되었는데,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님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도 당장 돈이 없다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용돈을 모았다가 산다'는 적극적인 응답이 약 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포기한다'로 21.7%의 학생이 소극적인 응답을 하였다(표 24). 그러나 이 결과는 남녀 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청소년들의 금전관련 정직성에 관한 면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연히 만원을 주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더니,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찰서나 학교에 알린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한 반면, 마음대로 '소비해 버린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의식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25). 이 결과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인정되어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소비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 소비자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경기도 지역의 중·고등학생 272명을 대상으로 1997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설문지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크

<표 23> 부모님이 자신의 생활에 갖는 관심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관심	조금관심	관심없음	잘모름	계
남 학생	87 (63.5)	34 (24.8)	7 (5.1)	9 (6.6)	137(100.0)
여 학생	61 (46.9)	50 (38.5)	7 (5.4)	12 (9.2)	130(100.0)
계	148 (55.4)	84 (31.5)	14 (5.2)	21 (7.9)	267(100.0)

$$\chi^2 = 7.876^{**} \quad df=3 \quad p<0.05$$

<표 24>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당장 돈이 없다면

단위 : 명(%)

구 분	빚을 내서라도 꼭 산다	용돈을 모아서 산다	포기한다	기 타	계
남 학생	17 (13.2)	78 (60.5)	28 (21.7)	6 (4.6)	129(100.0)
여 학생	13 (10.1)	76 (58.9)	28 (21.7)	12 (9.3)	129(100.0)
계	30 (11.6)	154 (59.7)	56 (21.7)	18 (7.0)	258(100.0)

$$\chi^2 = 4.544^{ns} \quad df=3 \quad p<0.10$$

<표 25> 우연히 만원을 주었을 때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친구들과 쓴다	사고싶었던 것을 산다	경찰서·학교에 알린다	저축한다	기 타	계
남 학생	26 (19.3)	66 (48.9)	12 (8.9)	23 (17.0)	8 (5.9)	135(100.0)
여 학생	18 (14.2)	78 (61.4)	3 (2.3)	18 (14.2)	10 (7.9)	127(100.0)
계	44 (16.8)	144 (55.0)	15 (5.7)	41 (15.6)	18 (6.9)	262(100.0)

$$\chi^2 = 8.450^* \quad df=4 \quad p<0.10$$

계 네 부분, 즉 용돈조달에 관한 내용, 용돈 사용에 관한 내용, 용돈사용에 대한 지도·평가 여부,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부분별로 관련되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돈조달에 관한 내용 : 청소년들은 주로 '어머니'를 통하여 '불규칙적으로' 용돈을 조달받게 되는데, 한달 평균 용돈액은 '1-3만원 미만' 또는 '3-5만원 미만'이 대부분(69.8%)이며, 이와 같은 용돈액수 결정은 주로 '부모님과 상의' 하거나 '부모님 단독'으로 결정(67.4%)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용돈액수에 대해서는 '부족한 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약간 많았고, 여학생이 보다 불만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이들 청소년은 '명절'이나 '성적이 오르면'(73.8%) 추가 용돈을 받고 있으며, 용돈을 받는 대가로 '아무일도 안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57.9%) 있었다.

둘째, 용돈사용에 관한 내용 : 청소년들은 용돈을 주로 '취미 오락비'와 '간식비'로 (74.3%) 지출하고 있으며, 용돈이 부족하게 되면 '다음 용돈을 가불'하거나(18.9%) '거짓말을 하는' 경우(15.5%)가 가장 많은데, 이 중 후자는 여학생의 경우에서 더욱 많았다. 또한 용돈이 남으면 '사고 싶었던 것을 사거나' '저축'을 한다고 하는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저축'보다는 '친구들과 논다'는 응답이 더욱 많았다.

셋째, 용돈사용에 대한 지도 및 평가여부 : 용돈사용에 관한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청소년이 무려 60.1%나 되며, 지도를 받았던 경우에는 76%가 '가정'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장소에 용돈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평가하지 않거나'(54.3%) 하더라도 '부모님이 물어보실 때만 알리는'(33.0%)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넷째, 일반적인 소비에 관한 내용 :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출행동에 대해 '가급적 분별있게 사용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과는 상관없는 일이거나 남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43.2%나 되었으며, 다른 친구에 대해서는 '충동적'으로 소비한다는 평가가 59.8%나 되는데, 여학생에게서 '충동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반면 남학생들은 '관심없다'는 의견이 더욱 많았다. 그리고 '자기만족용'(30.4%)이나 '효도용'(30%)으로 지출을 한 경우에 만족하고

있으며, 주로 '친구들과 어울릴 때'(55.8%) 계획에 없는 지출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학생은 주로 '시내 중심가'에서, 남학생은 '단골상점'에서 주로 물건을 구입하며, 제일 사고 싶은 품목은 '의류'이고, 물건을 살 때 주로 '친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86.9%의 학생은 부모님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관심있다'고 하였는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며,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을 때에는 '용돈을 모아서 산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우연히 만원을 줌게 되면 '사고 싶었던 것을 사거나 친구들과 써버린다'(71.8%)고 하여 그들의 금전관련 정직성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외국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돕는 것과 같은 노동의 대가를 치루지 않고도 부모님께 당당하게 용돈을 탈 수 있고, 더욱이 집안행사나 성적이 오르는 것과 같이 자신이 응당 수행해야 하는 일에서조차 무절제하게 추가 용돈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매우 비체계적이면서 무계획적으로 자녀의 금전관리 행동을 방치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모두의 의식이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가정에서의 금전관리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들은 학교나 정규 교육과정으로 용돈관리를 포함한 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간혹 이루어지는 가정내 교육 역시 부모님의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등 비체계적인 경향을 보이므로 이대로 방치하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제까지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 내에서 금전관리 및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용돈기입장을 기록·평가케 하는 등의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금전에 관한 청소년들의 사고가 다소 부정직하면서, 자신과 남의 소비모습이 사회적으로 갖는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역시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용돈사용에 관한 내용, 용돈 사용에 대한 지도·평가 여부 및 일반적인 소비의식과 행동면에서 남녀 학생 간에 차이나는 부분이 나타났다. 대체로 여학생은 장차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정의 소비생활을 책임지는 소비주체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게 되므로 개인적인 관심사 위주의 지출을 주로 하게 되는 남학생과 다르다고 보는 사회인식상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녀 학생별 차이를 감안한 독특한 소비자 교육내용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청소년에게 아무데기없이 용돈을 준다거나 성적이 오를 때 추가 용돈을 주는 등의 행위는 성인이 청소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능하다면 성인대상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육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모대상으로 하였음에도 경기도 지역 일부 중고등학생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과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남녀 학생간의 차이를 다룬 적이 없었음에도, 남자와 여자의 소비생활 내용에는 분명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남녀 학생간의 차이를 밝히려 한 점에서 뚜렷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국민경제교육연구소(1996). 청소년 시절부터 생활설계물 - 청소년 소비생활의 합리화.
 동아일보(1989). 7월 4일자.
 매일경제신문(1997). 6월 11일자.
 박무익(1983). 청소년 시장의 정의와 규모. 광고정보, 31.
 백선옥(1990). 청소년 소비자의 금전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백선희, 이연자(1998). 청소년 소비생활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미간행).
 이인희(1992). 가정관리학. 서울: 수학사.
 이명옥(1990). 어머니의 가정관리 능력과 청소년들의 금전관리 지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태호(1992). 청소년의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영주(1995).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정종원(1992). 청소년의 소비자 기능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일보(1997). 6월 18일자. 7월 22일자.
 조선일보(1998). 5월 20일자.
 조양주(1987). TV광고에 대한 고등학생의 의식과 태도를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차영실(1987). 청소년의 금전관리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한은하(1991). 청소년 용돈관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황덕순(1980). 청소년의 금전관리 행동의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